

5·18, 6·10 항쟁, 미디어 산실 ...

‘광주 현대사 1번지’ 전일빌딩 경매

전일실업, 신한은행 담보 15억 못갚아

80년 광주민중항쟁 등 꼭지 많은 광주 현대사의 한복판을 지켰던 ‘광주 1번지’ 전일빌딩이 경매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전일빌딩의 소유주인 전일실업이 이 건물을 담보로 빌린 15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5월초 광주지방법원에 경매신청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1 전일빌딩은 연면적 1만4207㎡ 건물로, 지난 1968년 12월10일 최초 7층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뒤 4차례 증축·확장돼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전일빌딩은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더불어 80년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민주화를 외쳤던 광주시민들의 항거와 그 열원을 짓밟은 군사정권의 만행을 묵묵히 증언해왔다.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탄과 폭압을 피해 몸을 이탁했던 곳도 전일빌딩 이었다. 광주항쟁 참가자들의 후일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일빌딩은 광주 도심 건축사에서도 거론된다. 건축가 조동희씨와 오무송씨가 설계했으며 70년대 금남로에 들어선 최초의 10층 건축물이다.

광주·전남 언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기도 하다. 광주일보 전

신인 옛 전남일보가 이곳에서 신문을 만들었고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을 통합해 탄생한 광주일보가 맙을 이었다. 또 광주·전남지역 민영방송이었던 전일방송이 1971년 이 건물에서 첫 전파를 내보냈고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이곳에 등지기를 했다.

전일빌딩 지하 1층 전일다방은 ‘7080’세대들의 낭만과 향수가 배어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광주·전남지역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인과 화가들의 사랑방으로 통했다.

최근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 일대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진흥지구(문화특구)로 지정해 개발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소유주인 전일실업의 재정난 등이 가중된 탓에 경매에 넘겨지는 처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해 부득이하게 지난 5월초 전일빌딩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며 “부동산 감정평가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빠르면 읊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본격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경매 신청된 금남로 1가 1-1번지 전일빌딩. 5·18과 6·10항쟁 등 굽곡진 광주 현대사의 한복판을 지켜온 상징적 건물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 환원... 정상화돼야”

광주경실련 촉구

5월 258개... 전달보다 30개 ↓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수가 2개 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6일 발표한 ‘5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 부도 동향’에 따르면 5월 신설법인은 258개로 전달보다 30개 감소했다.

신설법인은 지난 3월 321개로 정점을 찍은 뒤 4월(288개)부터 2개월째 내리막이다.

반면, 1월부터 5월까지 부도법인은 모두 34개사로, 지난해 전체 98개 부도업체의 35%에 달했다.

지난달 어음부도율(금액 기준)은 0.44%로, 전달(1.11%)보다 0.67% 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4월 2.15%에서 5월 0.

65%로 1.50%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은 0.06%에서 0.16%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은행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광주은행이 환수될 수 있으리면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이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화천기공 ‘代를 이은 메세나’

권영렬 사장 상속 주식 33억대 출연

서암문화재단 설립... 전통문화 육성



인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창작지원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화천기공 관계자는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단이 지역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4인 밥상 비용 2만4063원

채소·과일값 급등 여파 5년새 40% 올라

최근 몇년사이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4인 가족의 저녁 밥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5년전에 비해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0.5%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3.4~6.9%에 머물렀던 명목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소득보다 앞서가는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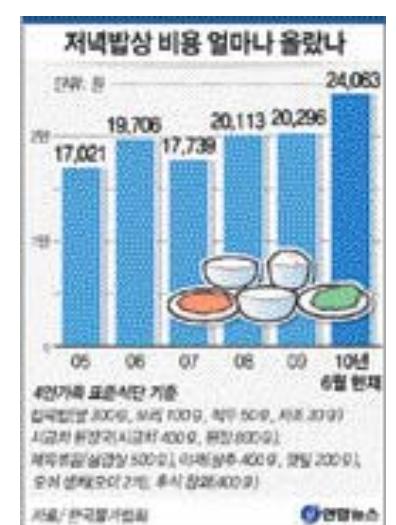
16일 연합뉴스가 한국물가협회와 함께 최근 5년간 4인 가족의 저녁 밥상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현재 밥상 비용은 2만4063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1.4%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밥상에 오르는 메뉴는 서울대 식품 영양학과 윤지현 교수가 제시한 4인 가족의 저녁 표준식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식단은 잡곡밥(쌀 300g, 보리 100g, 적두 50g, 차조 30g)과 시금치 된장(시금치 400g, 된장 800g), 제육볶음(삼겹살 500g), 야채(상추 400g, 깻잎 200g), 오이 생채(오이 2개), 그리고 후식으로 요즘 제철 과일인 참외(400g)로 구성됐다.

이 같은 식단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2005년 1만7021원에서 2006년 1만8706원으로 올랐다가 2007년 1만



7739원으로 잠시 내렸으나 2008년 2만113원으로 처음으로 2만원선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0만296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내렸지만 올해 들어 냉해와 폭설 등으로 채소와 과일 값이 급등하면서 2만4063원으로 경쟁 뛰었다.

/연합뉴스

한국광산업진흥회-현대통신 MOU

LED조명 산업 발전 이끈다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통신은 홀네트워크 업계 선두기업으로 지난해부터 LED 조명사업에 진출, KS인증을 완료하고 LED산업분야에 본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현대통신은 광산업진흥회 LED분야 중소기업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LED조명 신시장 발굴, LED 조명 및 허브 네트워크 분야 사업화 과제 및 제품 공동 개발, 미래유망 제품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 국내외 공공 및 민관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05.33 (+15.30)
▲ 코스닥지수	495.96 (+0.88)
▼ 금리 (국고채 3년)	3.72% (-0.01)
▼ 원·달러 환율	1,210.90원 (-16.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지역 신설법인 2개월째 감소

5월 258개... 전달보다 30개 ↓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수가 2개 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6일 발표한 ‘5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 부도 동향’에 따르면 5월 신설법인은 258개로 전달보다 30개 감소했다.

신설법인은 지난 3월 321개로 정점을 찍은 뒤 4월(288개)부터 2개월째 내리막이다.

반면, 1월부터 5월까지 부도법인은 모두 34개사로, 지난해 전체 98개 부도업체의 35%에 달했다.

지난달 어음부도율(금액 기준)은 0.44%로, 전달(1.11%)보다 0.67% 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4월 2.15%에서 5월 0.

65%로 1.50%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은 0.06%에서 0.16%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은행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광주은행이 환수될 수 있으리면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이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공무원

2010년 전남 도록행동 200만 모집
본 학원 출신 88명 합격 (합격률 67%)
10년 만에 광주·전남 출신 전남자 대학
광주·전남 출신자 97% 합격률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

특별이벤트 1 (수강료 할인)

- 1회수강료 10만원 + 10만원 추가 할인
- 2회수강료 10만원 + 10만원 추가 할인
- 3회수강료 10만원 + 10만원 추가 할인
- 4회수강료 10만원 + 10만원 추가 할인

특별이벤트 2 (수강료 할인)

개강 7월 1일

PEET / MEET / DEET

한국대학 | 외국대학 | 대학원 대학원

전국 대학원 진로 전문 컨설팅이 전하는 대학원 학과별 전망

전공별 예상 진로 및 대학별 진로
기초 과정
토익 / 텁스

개강 7월 5일

유니넷 대학편입

서울고시학원 MDPass 의학원

서울고시학원

154-4550
http://www.sohi.co.kr

서울경찰전문원 MDPass 의학원

http://www.sohi.co.kr 154-7291-7292